

중실에 직접 접종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. 실험결과 이 접종법에 의한 색소 형성정도는 자연감염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서 저항성계통의 효과적인 선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 방법을 이용, 저항성인 자원의 발굴을 위하여 수집재래종과 국내품종 및 도입종의 자주빛 무늬병에 대한 저항성 검정을 실시하였다.

7. 種子處理 및 播種深度가 麥類出現에 미치는 影響

崔炳漢, 南潤一*, 尹義炳

麥類品種에 對한 土壤水分含量, 土壤溫度 및 播種深度에 따른 出現勢, 出現率, 出現日數의 變異를 調査하여 麥類栽培에 있어서 出現日數를 짧게 하고 單位面積當 立毛株數를 播種後 單日內에 確保하여 安全越冬을 시킬 수 있는 栽培技術을 모색코저 試驗하였든바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.

- 1) 보리 新品種 〃 강보리 〃 에 있어서 土壤溫度가 높을 때는 6 ~ 9 일로서 變異幅이 좁고 土壤溫度가 낮을 때는 21 ~ 38 日로써 出現日數의 變異幅이 넓었다.
- 2) 播種深度가 얇을수록 出現이 均一하게 빨리되었고 播種深度 2 ~ 8 cm 에서는 出現率에 크게 影響을 미치지 않았으나 10 cm 區에서는 出現率이 크게 떨어졌다.
- 3) 播種深度와 土壤水分含量間의 相互作用에 依하여 播種深度 2 ~ 4 cm 區의 土壤有效用水量 60 ~ 80 % 에서 出現率이 가장 높았다.

4) H_2O_2 1% 용액, $CaCl_2$ 0.25% 용액에서 6시간 정도 麥類種子를 浸種後 물기를 댄다음 播種한 때보다 물기를 낸후 乾燥시켜 播種한 경우가 出現率 및 出現率을 높였다.

8. 맥류속간 교잡에 관한연구

II. 밀 중국81호와 호밀 재래종간 속간교잡의 염색체 배가에 의한 추파형 8배체 Primary Triticale 육성

(농촌진흥청 맥류연구소) 조장환, 안완식*, 김문자, 김봉연

한국의 기후에 적응성이 높은 조숙 내한, 다수성 Triticale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간 조숙성인 밀 품종 중국81호와 내한, 내병성 재래종 호밀간의 속간교잡 F_1 의 염색체배가로 육성된 8배체 Primary Triticale의 육성결과는 다음과 같다.

- 1) 조숙성 밀 중국81호와 (AABBDD)와 내한, 내병성 재래종 호밀 (RR)간의 속간교잡 F_1 의 염색체배가로 8배체 Primary Triticale은 (AABBDDRR)이 육성되었다.
- 2) 육성된 8배체 Triticale은 양친보다 형태적으로 크고 강건하였다. 특히 수장이 길고 일수영화수가 많았으나 결실율은 24% 정도로 낮았으며 수수에는 호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모이가 있었다.
- 3) Primary Triticale의 체세포내 염색체 행동은 규칙적이었으며 화분모세 포내 염색체는 F_1 에서 보다는 규칙적이었으나 Univalent가 많았고 정상적인 분열을 보인것은 22% 정도였다.